



표고버섯 (농진고 품종)



느타리 (춘추호 품종)



느타리만가다버섯 (햇살 품종)

국산 완성형 버섯 배지 성장 가능성 확인한다

농진청, 오늘 동남아에 표고·느타리 등 시범 수출

최근 전 세계적인 버섯 생산은 중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완성형 버섯 배지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표고버섯은 전반적으로 완성형 배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양송이는 45% 이상 완성형 배지를 사용하고 있다. 느타리 등 일부 버섯은 외국에서 완성형 배지 형태로 수입되고 있다.

완성형 배지(영양체)는 톱밥이나 짚을 재료로 만든 배지에 미리 버섯 씨균(종균)을 접종한 것으로 온도와 습도 및 등 재배 조건만 맞춰주면 바로 버섯이 나온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세계적인 버섯 산업 흐름에 대응하고 국내에서 개발한 완성형 배지의 생산성을 검증하고자 충청북도·강원도·경상남도농업기술원 한국중균생산협회와 공동으로 10일 베트남에 국산 완성형 배

지를 시범 수출한다.

이번 수출은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에서 주관하는 '수출용 버섯 종균 제조 기술 개발'의 공동 과제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다. 충청북도·강원도·경상남도농업기술원에서 배지를 제조하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씨균(종균) 생산기술을, 한국중균생산협회는 배지 검역 등 수출 전반을 맡아 진행했다.

수출 물량은 표고버섯(농진고 품종) 3톤, 느타리(춘추호 품종) 0.3톤, 느타리만가다버섯(햇살 품종) 0.1톤을 실어 보내며 베트남 현지에 도착하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린다. 이후 농가에서 배지 품질을 확인하고 각 품목을 재배해(느타리 10일, 느타리만가다버섯 3개월, 표고 4개월 이상 소요) 생산성

을 검증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첫 번째 수출한 완성형 배지에서 지난 우리 표고는 생산량이 많고 품질도 좋아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판매됐다.

한국중균생산협회 황선일 국장은 "현재 느타리, 큰느타리 등 다양한 버섯이 완성형 배지 형태로 수입되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국내 제조 기술을 하루빨리 확보해야 한다"며 "이번 수출이 국산 완성형 배지 제조 안정화 기술을 확보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장갑열 과장은 "올 8월에는 국산 양송이 품종이 배양된 완성형 배지도 시범 수출할 예정"이라며 "올해 말에는 표고, 느타리, 양송이, 느타리만가다버섯 4품종에 대한 완성형 배지 제조법을 책자로 발간해 우리나라 버섯 배지 제조 기술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4대 사회보험, 온라인으로 쉽게 배우세요”

국민연금, 온라인 교육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이 누구나 쉽게 4대 사회보험 제도를 이해하고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9일부터 '4대 사회보험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기본교육(포털사이트 이용방법, 4대 사회보험 제도 안내)과 테마교육으로 구성됐으며, 콘텐츠는 내·외부 협업을 통해 실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사례 중심으로 제

작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위해 전년도 수강원이 가장 많았던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와 신규 편성한 건강보험 제증명서 조회·발급을 테마교육으로 제공한다.

특히,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기간(2022년 5월 31일까지)에 맞춰 교육을 전년도에 비해 3개월 가량 앞당겨 실시해 수강자 편의성을 제고했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www.4insure.or.kr) 및 각 기관 유튜브 채널(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유튜브)에서 상시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다.

김정화 연구사는 "이번 교육으로 국민들이 사회보험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포털사이트를 활용해 각종 사회보험 신고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사각 지대를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지역혁신프로젝트 성과 3년 연속 'A등급'

전주상의 전북인자위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공동위원장 신원식 전북도정무부지사, 윤광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이하 전북인자위)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및 지역혁신 프로젝트 성과 평가에서 3년 연속 A 등급을 획득해 우수 사업 운영 기관으로 평가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 평가에서 전북인자위는 훈련과정 운영, 네트워킹, 사무국 운영 등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한편, 코로나 19 및 산업구조 변화로 위기에 처한 기업에 선제적 대응에 적극 노력했으며,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기업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역 일자리 관련 주요 현안 발굴 및 대응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포럼 개최, 산업별 일자리 발굴 협의 체계 구축 또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전북인자위는 2022년에도 전라북도 지역 현안을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자리 발굴 취업지원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기업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과정 운영을 위해 매년 도내 1,000여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인력 및 훈련 수요와 공급 파악하는 수요조사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도내 중소기업 1,019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력 및 훈련 수요 조사를 진행했으며, 신규채용자 양성 훈련 수요 5,370명, 재직자 향상훈련 2만 8,420명을 도출했다.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선정된 공동훈련센터(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 한국폴리텍대학교 전북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교 익산캠퍼스, 캠틍종합기술원)를 통해 2022년도에는 81개 과정을 운영해 총 2,371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혁신 선도 사업을 발굴·육성하는 전북지역혁신 프로젝트도 운영하고 있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지역고용창출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지역 중심의 혁신 선도사업을 발굴, 육성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주력산업 연계형 프로젝트와 특화 일자리 프로젝트로 구분해 지역의 현안을 반영한 일자리 위기 해소와 미래 일자리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역혁신프로젝트를 통해 178명의 인원이 취·창업에 성공해 목표 대비 119% 성과를 달성했으며, 올해는 지역별 로컬 JOB센터를 추가 운영해 1,367명 이상의 취·창업 인원을 배출할 계획이다.

또한 일·학습병행 사업을 통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현장 기반 훈련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전

북인자위는 520여개 업체가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학습병행 신규 기업 발굴 24건, 사업 참여 컨설팅 71회 운영 등 기업의 인력 채용에 대한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외에도 전북인자위에서는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 위기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분야의 재직자 및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이·전직 등을 지원하는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1차 공고를 통해 '드림잡업전문학교' 등 8개 훈련기관과 '기계·자동차 설계 지원이터 양성과정' 등 15개 과정을 선정해 지역의 산업위기에 대응하고 있으며, 5월 중순경 2차 공고를 진행해 올해 총 1,500여명 이상의 훈련생을 배출할 계획이다.

전북인자위 관계자는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는 지역 현안을 반영한 조사와 산업계 네트워크 등을 통한 여러 협의 과정을 거쳐 채용예정자 및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고용위기 해소 등을 위한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과 일자리 사업 발굴 등 전라북도 미래 일자리에 대응 할 수 있는 미래형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안정적인 공탁금 관리·금융서비스 제공 앞장

NH농협은행 남원지원지점 개점



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경민)가 9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의 새로운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NH농협은행 남원지원지점(지점장 강민경)을 개점하고 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개점식에는 박지영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 권오정 농협남원시지부장, 김성훈 농협은행 기관사업국장 등이 참석해 남원지원지점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작년도 공개경쟁을 통해 농협은행 도내 4개 법원의 공탁금 관리은행으로 선정됐으며, 3월 전주지원지점을 시작으로 익산·부안·정읍지점, 남원지원지점을 순차적으로 개점 완료했다.

농협은행은 전국적인 영업망과 우수한 공공금융 인력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공탁금 보관 및 주민 이용편의

를 위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장경민 본부장은 "농협은행이 갖고 있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공탁금 관리와

지역밀착형 금융실천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법원·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진정한 동반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9일 전북 통합마케팅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농업 발전 위한 협력 모색

전북농협-원예특작과학원, 통합마케팅 사업 활성화 간담회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원장 이지원)은 9일 전북 통합마케팅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양 기관의 상호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전북 통합마케팅 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인 삶의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28일 전북농협에서 농촌진흥청을 방문해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한 후속 조치로, 전북 통합마케팅 조직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및 참여농협의 농산물 신지유통센터장 등 20여 명

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출 농산물 및 APC 취급 신선 농산물 상품화 관련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련 시설 등을 견학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공간대를 형성하고, 농산물의 스마트 유통 및 수출 활성화에 대해 상호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호 본부장은 "농촌진흥청과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전북 통합마케팅 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인 삶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농기원, 국내 최초

'블루베리' 신품종 육성 개거

전라북도농업기술원(원장 박동규)은 지난 2010년부터 본격적인 블루베리 육종사업에 착수하고 노력한 결과, '블루퀸'과 '블루선' 등 5품종을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등록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육성한 블루베리 신품종은 기존 농가들이 재배하고 있는 수입 품종인 듀크에 비해 과실이 크고, 신맛이 적고 당도가 높으며 과육이 단단하다. 수확 후기가까지 과실크기가 고르고 생산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현재 재배되고 있는 블루베리는 대부분 미국에서 육성한 것으로 전량 도입된 품종이며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뉴시스

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 개시

중기중앙회 '참!기업매칭' 무료 역량검사로 직무적합도 잠재역량 파악 맞춤형으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일부터 '참!기업매칭' 플랫폼 내 AI를 활용한 일자리 매칭 서비스인 '참! 기업매칭'을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참!기업매칭'은 중소기업 플랫폼은 청년 등 구직자들이 일하고 싶은 우수 중소기업을 쉽게 찾고,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된 온라인 플랫폼으로 홈페이지(gsmb.ms.gkr)와 앱(구글플레이 및 앱스토어)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참! 기업매칭'은 AI 역량검사에 기반한 맞춤형 매칭시스템으로 구직자에게는 직무별 적합인재를, 구직자에게는 성향별 적합한 일자리를 자동으로 추천해 맞춤형 채용·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특히 이 서비스를 통해 '참!기업매칭'은 기존 우수기업 정보 제

공에 더해 구인기업 구직자 매칭 기능까지 갖춘 '중소기업 일자리 전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 기업매칭'으로 구인기업은 채용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역량검사를 통해 직무적합도와 잠재역량이 뛰어난 맞춤형 인재를 추천받을 수 있다.

구직자는 누구나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역량검사를 기반으로 자신에게 맞는 기업추천과 AI 면접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참!기업매칭은 중소기업 플랫폼을 통해 청년들이 중소기업의 정보를 올바르게 습득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길 바란다"며 "이번 참!기업매칭 서비스로 우수기업과 능력있는 인재를 빠르게 정확하게 연결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기업매칭' 플랫폼과 '참! 기업매칭' 활용에 대한 문의는 중기중앙회 청년희망일자리부(02-2124-4011, 4014)로 하면 된다.

전주세관, 개청 46주년 맞아

기념행사 개최... 우수직원 포상

전주세관은 9일 오후 대강당에서 '개청 46주년 기념일'을 맞아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공무원 포상 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주세관은 1976년 5월 8일 군산세관 전주출장소로 문을 연 후 2008년 1월 2일 전주세관으로 승격했다. 현재 산하에 익산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또 군산시를 제외한 전북 전 지역을 관할하며 수출입 통관, 기업 지원, 화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우용욱 전주세관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수출입 기업 지원 등 전북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주세관은 2021년 한해 55억 4000만 달러의 수출과 10억 4000만 달러의 수입을 달성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maeil.com